

문헌번역 | Translation

## 보편 인종

호세 바스콘셀로스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 1882~1959) 멕시코 사회에 내재된 상이하고 차별적인 문화, 인종, 종족, 계급을 메스티소라는 인종적 개념으로 수렴하여 국민을 민족으로 고양함으로써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에 뒤이은 국민통합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본 글은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메스티소를 제5인종 혹은 인류 최후의 인종으로 이상화하는 바스콘셀로스의 논점을 보여주는 『보편인종』(La raza cósmica, 1925)의 첫 장 ‘혼혈(Mestizaje)’의 첫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우주인종’이라는 번역어로 소개되고 있으나 ‘cósmica’의 문맥상 의미는 ‘우주’보다는 ‘범세계’, ‘보편’, ‘일반’에 더 근접하므로 보편인종이라고 옮겼다. 스페인어 ‘raza’도 ‘인종’ 이외에 ‘국민’, ‘민족’이라는 뜻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 혼혈(Mestizaje)

아메리카 대륙의 기원과 목적. 라틴인과 앵글로색슨인. 두 민족의 임무. 제5인종 혹은 보편인종.

#### I

권위 있는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도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안데스 지역은 분명 지구상 그 어떤 곳 못지않게 오래된 땅이다. 그곳이 가장 오래된 육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거기 살던 사람들의 문화와 삶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유구하다는 의미이다. 전설이 된 마야, 케추아, 툴테카 유적은 그들의 문명화된 삶이 동양과 유럽의 민족의 그 어느 문명보다 앞섰음을 입증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문명의 요람으로서 수천 년 전에 번영을 누리고 사라진 아틀란티스가 지금의 아메리카라는 가설이 인정되고 있다. 아틀란티스는 미지의 과거사를 불러내니, 이따금 그린란드의 눈 속에서 발견되는 삶과

문화의 자취만 남기고 사라진 히페르보레이오이 대륙,<sup>1)</sup> 레무리아인<sup>2)</sup> 또는 남반구 흑인, 아틀란티스 문명의 홍인, 뒤이어 황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인 문명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 심원한 전설적 가설은 인류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있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파타고니아에서 인류가 출현했다고 주장한 아메히노<sup>3)</sup> 같은 지리학자들의 연구보다 훨씬 유효하다. 한편, 베게너의<sup>4)</sup> 대륙이동설은 유사이전 민족이 제국을 이뤘음을 탁월하게 입증해준다. 그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가 분리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찾을 수도 없는 육로를 통해 대륙간 이동이 이뤄졌다는 가설에 기대지 않고도 한 종족이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며 인종으로 발전했고, 그 뒤로 이어진 시대의 부침 속에서 다른 인종으로 대체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근대 지리학 자료들이 고대 지리학 전통과 일치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베게너에 따르면 남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되기에 앞서 호주, 인도, 마다가스카르가 분리됐다고 한다. 이는 대서양이 가장 뒤늦게 생겼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아틀란티스가 문명이 꽃피우기 전에 레무리아 문명이 사라졌다는 사실, 즉 아틀란티스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대륙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전개된 과거사가 다소 혼란스러운 탓에 그 의미가 미미하지 않음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산에서 태동하여 강력히 성장한 전설적 문명은 생생히 살아있다. 아직도 그 흔적이 치첸이사와 팔렌케,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신비를 물려받은 모든 곳에 남아있다. 신비로운 홍인은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담긴 비법을 어느 콜롬비아산 에메랄드에 새겨 ‘에메랄드 태블릿’을<sup>5)</sup> 만들었다. 이 태블릿은

- 
- 1) 그리스 신화에서 트라키아(발칸반도 남동쪽)의 북쪽에 위치한 미지의 땅으로 북극을 가리킨다—옮긴이.
  - 2) 레무리아(Lemuria)는 인도양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으로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인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지역에 해당한다—옮긴이.
  - 3) 플로렌티노 아메히노(Florentino Ameghino 1854~1911): 아르헨티나 인류학자로 팜파인(homo pampeanus)설을 주장했다—옮긴이.
  - 4) 알프레트 베게너(Alfred Wegener 1880~1930): 대륙이동설을 주창한 독일의 지리학자—옮긴이.

지구에 격변이 발생하자 이집트로 옮겨졌으며, 헤르메스와 제자들이 그 비밀을 연구하고 번역했다.

이 땅이 유구한 만큼 우리의 전통 또한 그러할진대, 탐험가와 정복자들이 밭을 딛기 전부터 존재한 대륙을 ‘신대륙’이라 부르는 유럽인들의 날조된 허구를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역사를 모종의 기획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제기는 아주 중요하다.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턱대고 불가피한 반복의 고리만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이 대륙이 아주 오랜 고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무의미해 보일 것이다. 우리가 톨테카의 유적을 보고 문명을 그저 수많은 돌이 층층이 쌓인 것으로, 활처럼 흰 돛 모양의 지붕이나 직각으로 만나는 두 개의 면(面)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면 현대 문명이라는 작품도 하잘 것 없는 것이리라. 사오천년 후에 또 다른 이주자들이 지금의 진부한 건축물의 잔재를 보면서 여가나 즐길 거라면 뭇 하리 문명을 세우겠는가? 과학적 역사는 혼탁한 탓에 이런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며, 경험적 역사는 근시안인 탓에 자질구레한 것에 심취할 뿐 역사적 시간 속에 일어난 단 하나의 전사(前事)도 밝히지 못한다. 경험적 역사는 보편적 결론, 그 중대한 가설들을 벗어나버린다. 그리하여 광범하고 포괄적인 이론이야 어찌되건 말건 중요치도 않은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한 사물과 두개골이나 도구를 기술하는 유치함에 빠진다.

풍부한 자료를 갖추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야만 전문가의 미시(微視) 이데올로기를 누르고 그 위에 우리의 비전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방향과 리듬, 목적을 설정하려면 총체적으로 역사를 살펴야 한다. 전문가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종합인(綜合人)과 창안자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럼 소설가의 환상이 아닌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직

5) 연금술, 점성술, 신성마법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신적 존재인 헤르메스 트리сме기스투스(Hermes Trismegistus)의 작품이라고 전해진다—율긴이.

관적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아틀란티스인으로 부르는 민족은 아메리카에서 만개하고 사라졌다. 아틀란티스는 화려한 번영의 주기를 마치고 임무가 끝나자 침묵 속에 사그라지며 그 유구하고 우월한 문화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문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 혈통도 바뀌었으니, 이집트에서 빛을 발하고 인도와 그리스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인종을 낳았다. 아리아인은<sup>6)</sup> 드라비다인과<sup>7)</sup> 섞여 힌두스탄인을<sup>8)</sup> 낳았고 또한 다른 문화와 뒤섞여 헬레니즘 문화를 창조했다. 그리스에서는 서구 문명, 유럽 문명, 즉 백인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백인 문명이 팽창하여 잊혀졌던 아메리카 대륙의 해변에 내려 정착하고 재문명화를 개시했다. 그러하니 우리는 네 시대를 거치며 흑인, 인도인, 몽고인, 백인, 이렇게 네 가지 혈통을 지닌 셈이다. 과거 여러 민족이 각각 세력을 발휘한 시대가 있었듯이 유럽에서 생겨난 백인은 세계 침략자가 되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백인의 우위는 분명히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기존의 인종들과 다르다. 그들의 임무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백인은 모든 인종과 문화가 뒤섞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백인에게 정복된 현 시대의 문명은 모든 인종을 다섯 번째 보편 인종으로 통합하기 위한 물질·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 선대 인종들의 결실이자 모든 과거를 뛰어넘는 일이다.

백인의 문화는 이주의 문화다. 그렇다고 전(全)유럽이 수세기 전부터 백인으로 대변되던 선(先)보편적 문화양식에 홍인의 세계를 재편입하는

6) 인도 게르만 어족계에 속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와 이란으로 이동하여 정주한 민족이다—울긴이.

7) 드라비다인은 아리아인이 들어오기 전 인도에 살던 거주민이다. 드라비다는 남인도의 데칸고원에서 동해안과 실론(스리랑카) 북부에 걸친 넓은 지방에 대한 옛 명칭이다—울긴이.

8) 힌두스탄인은 인도 북부를 둘러싼 산지와 반도 사이에 가로놓인 광대한 평야의 거주민이다. 힌두스탄은 '힌두교의 땅'을 의미한다—울긴이.

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이 중대한 임무는 가장 대담한 유럽인이자 가장 강인한 두 민족인 스페인인과 영국인이 수행했다.

\*\*\*

신대륙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이주함으로써 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과업을 수행한 자들은 신대륙 발견과 정복이 시작된 때부터 스페인인(castellano)과 영국인, 다시 말해 라틴인과 앵글로색슨인이었으며, 여기에 일부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도 포함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문화를 이식하는 식민지 지배자로만 느꼈을지 모르나 사실 그들은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의 시대를 여는 토대를 확립한 것이었다. 천부적 재능과 배짱을 지닌 라틴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풍요로운 땅, 가장 좋은 땅을 점령했으며, 영국인들은 자기들보다 유능한 자들이 남긴 것에 만족해야 했다.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그들의 영토에 앵글로색슨인이 접근하는 걸 용납지 않았다. 앵글로색슨인은 전쟁이나 교역에 끼어들 감량이 되지 않았다. 식민 초기에 라틴인의 우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교황이 신세계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누어 지배하도록 중재할 때만하더라도<sup>9)</sup> 몇 세기 후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아닌 미국이 신세계를 지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평화로이 집안일이나 하던 허드슨과 델라웨어의 평범한 개척자들이 야금야금 영토를 확장하며 세력을 키워 오늘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반열에 오를 공화국을 이루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앵글로색슨인과 라틴인의 대립은 제도, 목적, 사상의 전투로 변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적함대의 패배는 대립의 위기를 촉발했고, 트라팔가르 해전의<sup>10)</sup> 패배는 그 위기를 악화시켰다. 그 이후 전장이 신대륙

9) 알렉산데르 6세가 중재한 1494년의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가리킨다.

10) 트라팔가르 해전(Battle of Trafalgar)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중 1805년 10월 21일에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로 영국해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으로 바뀌었으나 이곳에서도 치명적인 사태가 벌어졌으니, 산티아고 데 쿠바, 카비테, 마닐라에서의 패전은<sup>11)</sup> 무적함대와 트라팔가르 해전의 참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온전히 신계계로 옮겨졌다. 역사에서는 몇 세기가 며칠에 불과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아직도 패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것도 없다. 우리는 낙담의 시대를 지나며 영토권은 물론이고 도덕적 힘까지 잃어가고 있다. 패배로 인해 연대는 소원해졌고 의지는 흐지부지 흩어졌다. 패배는 우리의 가치와 개념에 혼란을 야기했다. 승자는 외교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권세를 빼앗겼는데도 맹목적 애국심을 뽐내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부정하고 있다. 패배와 더불어 우리는 추락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필수 재화를 빼앗고 소수의 형제들에게 특별한 이득을 챙겨주며 서로를 분열시킴으로써 적들의 정치에 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투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사상적으로도 패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족 공동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형제국과 연을 끊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조약을 체결하여 허황된 이득을 챙기는 순간, 우리는 중대한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우리의 민족주의를 창조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대륙의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앵글로색슨의 가장 훌륭한 동맹이 되었다. 우리는 워싱턴에 있는 범미주연맹(Unión Panamericana) 본부에 게양된 스무 개의 국기가 적들의 교묘한 조롱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허황된 꿈의 표시인 그 보잘 것 없는 깃발에 우쭐거리고 있으며, 심지어 저 강한 미국(Unión norteamericana)에 우리의 불화를 들켰으면서도 수치스러워할 줄 모른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쓸쓸한 이베로아메리카<sup>12)</sup> 국가들의 문장(紋章)이 미국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른 채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질투

11) 1898년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을 가리킨다—옮긴이.

12)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리아 반도(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라는 뜻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와 동의어이다—옮긴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굴복하고 동맹을 맺고 있다. 심지어 중앙아메리카 5개국은 국가적 통합도 이뤄내지도 못했다. 이는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진정한 애국주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창조적 사고의 결핍과 지나친 비판적 열의, 우리가 타문화에서 가져온 그것들이 우리의 토론을 무익하게 만들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담은 공동체를 긍정하자마자 곧 바로 부정해버린다. 영국은 자국 사상가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동에 들어가면 형제국인 미국, 호주와 동맹을 형성하며, 양키들도 스스로 영국에 사는 영국인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스페인 혈통의 아메리카인으로서 스페인의 후손임을 망각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귀한 공동의 임무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베리아 문화가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아메리카 대륙에서 앵글로색슨 문화가 무적의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문명이란 즉흥적이지도 중단되지도 않으며 정치조직의 역할을 배제하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문명은 언제나 백년대계를 세우고 유사 이래 전파되고 조합된 요소들을 정화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달고 신부가 이끈 독립의 함성이나<sup>13)</sup> 키토의 반란<sup>14)</sup> 또는 볼리바르의 공적을 애국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애국주의를 쿠아우테묵과<sup>15)</sup> 아타우알파에<sup>16)</sup>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토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 우리는 그 애국주의를 스페인이라는 근원으로 끌어올리고 패배를 교훈삼아 그 속에서 애국주의를 가르쳐

13) 미겔 이달고 신부(Miguel Hidalgo y Costilla, 1753~1811): 1810년 ‘돌로레스의 함성’이라는 민중봉기를 기점으로 멕시코 독립운동을 이끌었다—옮긴이.

14) 1809년 에쿠아도르의 크리요 세력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자 키토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페루와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청이 보낸 군대에 패배한 사건을 가리킨다—옮긴이.

15) 쿠아우테묵(Cuauhtemoc, 1502~1525): 아스테카의 마지막 황제—옮긴이.

16) 아타우알파(Atahualpa, 1497~1533): 잉카의 마지막 황제—옮긴이.



야 한다. 무적함대의 패배와 트라팔가르의 패배 또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애국주의를 라틴과 앵글로색슨의 지난한 전투의 노정에서 찾지 않는다면, 보편 정신을 지니지 못한 지역주의 성질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행여 그리 된다면 우리의 애국주의는 쪼그라들고 근시안이 되어 바위에 붙은 무기력한 연체동물처럼 퇴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조국을 부정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의 가치를 긍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 가치가 지고한 인류애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심장이 오직 훌륭한 세계주의에 합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정세에서 세계주의는 강대국의 승리만을 낳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영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봉헌하는 것이다. 2억 명의 러시아인은 인도와 이집트처럼 억압받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론적 세계주의를 뒤로 미루었다. 더불어 그들은 제국주의 강대국에게 이롭게 작용할 내부 분열을 막고자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현실로 구체화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우리 같은 약소국이 스스로 자기의 고유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유아적인 짓이다. 작금의 문명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애국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물질적·정신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국주의는 당연히 광범하고 초월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어찌 보면 애국주의의 임무가 독립과 더불어 종결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애국주의를 인류 역사의 물길로 되돌려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벌어진 첫 번째 중대한 전투에서 패했다. 그 이후,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함으로써 우리는 신세계에서 모든 이권을 누렸지만 나폴레옹의 우둔함 때문에 바다 건너 루이지애나가 영국 양키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로써 신세계의 운명은 앵글로색슨 쪽으로 기울었다. “전쟁의 천재”라는 자는 유럽 국가 간의 보잘 것 없는 국경싸움 너머를 내다보지 못했으며, 그가 보여주려던 라틴성이라는 대의는 공동의 운명을 그 무능한 자에게 믿고 맡김으로 인해 제국이 건설된 바로 그날 좌초하고 말았다. 더욱이 유럽은 편견 때문에 아메리카에 이미 세계적 차원의 충돌

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나폴레옹은 그 싸움에 뛰어들지도, 그 충돌의 위중함도 인지하지 못했다. 우둔한 나폴레옹은 유럽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곳이 바로 신세계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아메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력이 부지중에 무너지자 스페인도 쇠락했다. 나폴레옹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공의 적에게 넘겨버렸다.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제국도 없었을 것이며, 프랑스령이던 루이지애나는 라틴아메리카 연합에 귀속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도 별 것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운명이 무지렁이의 수중에 있었던 탓에, 독재군주주의가 라틴인에게 재앙이었던 탓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세계적 계획을 배신함으로 인해 스페인의 아메리카 제국은 죽음에 맞닥뜨리며 최악의 시기에 빠졌다. 앵글로색슨인들은 루이지애나에 무혈 입성하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손쉽게 정복할 준비를 했다. 표현력이 풍부하여 스스로를 양키라 칭하는 영국인들은 미시시피가 없었다면 태평양을 손에 넣고 오늘날 대륙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아메리카에 이식된 네덜란드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것이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아메리카를 앵글로색슨인의 손에 넘긴 장본인이다.

외적 요인, 협약, 전쟁, 정치만으로 민족의 운명이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폴레옹 같은 자들은 그저 허세와 부패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의 쇠퇴, 공공 자유 상실, 총체적 무지는 한 시대의 민족 전체의 에너지를 무력화한다.

스페인인들은 재정복전쟁(Reconquista)을 마치자 남은 힘을 신세계에 쏟아 부었다. 자유인 코르테스, 피사로, 알바라도, 벨랄카사르는<sup>17)</sup> 왕족

17)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1484~1547):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Francisco Pizarro, 1478~1541): 잉카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의 정복자. 알바라도(Pedro de Alvarado, 1485~1541): 코르테스의 원정 및 중앙아메리카와 페루 정복에 참여한 스페인의 정복자. 벨랄카사르(Sebastián de Belalcázar, 1480~1551): 콜럼버스와 피사로의 원정에 참여한 스페인의 정복자—옮긴이.

도 하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파괴적 힘과 창조적 재능을 지닌 위대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승리를 거머쥐자마자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고 도시 설립에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놓고 힘겨운 싸움에 휘말리면 그들은 피사로 형제가 보여준 유명한 처결처럼<sup>18)</sup>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되갚아주었다. 그들은 엘시드와<sup>19)</sup> 황금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그리고 찬란한 시대의 모든 자유인이 그랬듯이 국왕 앞에선 모두 동등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정복이 완성되어가자 새로이 건설된 모든 조직이 궁정과 충신들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들은 무능했다. 정복은커녕 다른 이들이 재능과 용맹으로 정복한 것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그 썩어빠진 궁정인들은 국왕의 권력에 순종하면서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자를 억압하고 복종시켰다. 아메리카에서 그들과 그들의 주인이 한 일이라고는 스페인의 재능으로 이룩한 과업을 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강철 같은 정복자들이 개시하여 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완성한 경이로운 과업이 파괴됐다. 벨라스케스와 고야가 정확히 그려냈듯이, 난쟁이에 광대와 궁인을 대동하고 들어온 일단의 궁정인들은 식민지 경영에 재앙을 가져왔다. 로마제국을 모방하려는 열망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가 군국주의와 절대주의로 인해 추락하던 시기에 덕으로 강성해진 경쟁자는 자유를 누리며 성장하고 팽창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발전시켰고 성공을 직관했다. 뉴잉글랜드와 버지니아의 옛 개척자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더욱 강해지기 위해 영국과 결별했다. 그러나 정치적 분리가 그들의 민족 공통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연합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진 않았다. 그 위대한 민족은 해방으로 허약해지기는커녕 두 갈래로 나뉘어 다양화하고

18) 디에고 데 알마그로(Diego de Almagro, 1475~1538)가 칠레 원정에 실패하고 피사로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사로의 형제들을 가뒀는데, 이를 구실로 피사로는 알마그로를 처형한다. 이에 1541년 알마그로의 아들이 피사로의 궁을 공격해 피사로를 살해한다—옮긴이.

19) 엘 시드(El Cid, 1040~1099): 스페인의 국민적 영웅이다—옮긴이.

세계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인 영국의 억압적 중심부 밖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섬나라 영국이 정복하지 못한 것은 신대륙의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스페인 혈통과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들은 해방이 오자 전통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국인들이 우리의 땅을 정복하는 편이 나았을 거라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혈통을 부정했다. 우리는 폭정이 공포를 야기했으며 패배로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배반의 말을 던졌다. 그러나 한 민족의 역사적 의미가 이런 식으로 상실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을 일이다. 그건 강력하고 현명한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

어쨌든 영국인들은 탈스페인을 주장하는 논리와 그에 상응한 영국화를 교묘히 전파하여 우리의 이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트라팔가르의 굴욕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만들었다. 행여 독립투사들의 군사령부에 영국 장교들이 개입했더라면 우리의 명예에 먹칠을 했을 것이다. 그리 되지 않은 것은 그 모욕 앞에 고상하고 유구한 핏줄이 소생하여 노약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영국 해적들을 벌하였기 때문이다. 패배할 경우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적으로 위장한 영국 해적선은 승리를 거머쥐어 귀족이 되는 명예를 얻으리라는 기대로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는 베라크루스, 아바나, 캄페체, 파나마에서 그랬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대포로 응수하며 항전의 전통을 이어갔다.<sup>20)</sup>

침략자에 대항한 견고한 단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립전쟁은 지역주의와 통합 기획의 부재로 퇴색되고 말았다. 세계제국을 꿈꾸던 민족이자 영광스러운 로마의 후손일 수도 있는 우리가 산 정상이 아니라 고작 벽을 마주하고 고만고만한 국가에 공국의 주권을 만드는데 만족하고 말았다. 볼리바르, 수크레, 흑인 페티옹,<sup>21)</sup> 그 외 대여섯의 탁월한 해방자들

20) 1806~1807년 영국이 두 번에 걸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침공하였으나 크리오요의 저항에 물러난 바 있다—옮긴이.

21) 볼리바르(Simón Bolívar, 1783-1830)는 아메리카의 통합을 꿈꾸며 아메리카의 독

은 발칸반도의 영광을 꿈꿨다. 그러나 다른 해방자들은 지역에 얽매어 어지러운 말만 내뱉으며 가짜 혁명에 말려들어 대륙을 일으킬 초석이 될 수 있었던 전쟁을 초라하게 만들었을 따름이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무지한 실천가들의 목적이 위대한 라틴의 힘에 대한 꿈을 깨뜨리고 파탄 내는 데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 속에서 명예를 찾으려 했을지 모르나 볼리바르의 중대한 충고는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사회 발전 과정에는 주어진 순간을 규정하는 필연적이고 깊은 원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이 땅의 지형은 과거에도 지금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상을 다듬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정신적 질서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사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물리적 환경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미나를<sup>22)</sup>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대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더욱이 1세기 동안 멕시코의 애국주의는 우리 군인들의 불굴의 용기 덕분에 스페인을 이겼다고 가르쳤다. 카디스 의회에<sup>23)</sup> 대해서는 거의 거론조차 없었으며, 우리 민족을 괴롭힌 나폴레옹에 저항한 봉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형제 민족들의 승리와 순교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과오이며, 역사가 전제군주의 만족을 위해 봉헌한 시대적 결과물이다. 그러니 사이비애국주의는 그 영웅들을 대륙적 운동의 총체로 보지 않고 개별적 영웅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위대함을 무시한 채 그들을 초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립운동을 이끌었다. 수크레(Antonio José de Sucre, 1795~1830)는 볼리바르의 동료로 페루와 볼리비아 대통령을 역임했다. 페티옹(Alexandre Pétion, 1770~1818)은 아이티의 군인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했으며, 아이티 대통령을 역임했다—옮긴이.

22) 미나(Francisco Xavier Mina, 1789~1817), 스페인 군인으로 프랑스에 맞서 스페인 독립운동을 했으며, 멕시코에서는 반란군의 편에서 멕시코의 해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옮긴이.

23) 카디스 의회(1808~14): 1808년 프랑스가 스페인을 장악하자 카디스로 피난하여 구성한 스페인 임시정부 의회—옮긴이.

이러한 착오는 원주민이 스페인 혈통과 아직 총체적으로 섞이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럴 뿐이다. 우리 스스로 라틴성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격앙된 원주민문화애호론자(indianista)에게 물어보라. 그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스페인 문화라고 하면 즉시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물려받은 혈통의 자취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자취는 몇 세기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위협은 제거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삶의 환경이 라틴화되는 만큼 원주민도 스페인화, 라틴화되고 있다. 어쨌거나 원주민의 선조인 붉은색 아틀란티스인들은<sup>24)</sup> 수천 년 전에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회귀란 없다. 역사는 변화이자 새로움이다. 그 어떤 인종도 부활하지 않는다. 각 인종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사라진다. 이는 고대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며 과거의 역사가들도 인정한 바이다. 따라서 오늘의 승리자인 순수 백인의 시대는 그들 선조의 시대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기계화하는 운명을 완수한 순간,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시대, 즉 모든 민족이 융합되고 혼합되는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주민은 미래를 향한 문, 근대문화의 문을 열고 훤히 트인 라틴 문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백인 또한 오만을 버리고 진보를 추구하며 다른 혈통의 형제들 영혼에 속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백인은 인류의 우성 인자 속에서, 재능을 강화하고 그 발현이 다양화되는 양식들 속에서 혼합됨으로써 완전해질 것이다.

[이경민 옮김]

---

이경민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

24) 붉은색 아틀란티스인: 19세기 인종주의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홍인종(紅人種)으로 분류했다—옮김이.